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북 압박 계속되게 노력해달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발전을 돈독히 해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가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1월 9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부 말씀

CONTENTS

2016년 **12**월 VOL.122



06

Grang Wasser Ver grang and and a state of the state of th

14





02 이달의 메시지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북 압박 계속되게 노력해달라

커버스토리

66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과 대책

> 트럼프의 '입'을 보지 말고, 미국과 공화당의 구조를 보라



10 분석

사드 이후의 한중관계

혁명 시대엔 북한, 건설 시대엔 한국… 지금은 '시진핑의 입'에 주목할 때

14 특집

확장억제로 북핵 대응 가능한가

미국은 어떻게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가

18 특집

2016 김정은 신년사 리뷰·전망

'진짜배기 싸움꾼'은 길러냈으나 인민의 주린 배는 채워주지 못했다

22 이슈

북한의 군수산업

핵무기 제조는 영변 핵센터, 미사일은 제2경제위 4국이 담당

26 진단

탈북민 3만 시대

먼저 온 통일, 먼저 해보는 통합 탈북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30 북한 IN

유엔 제재 뚫는

'대인기' 북한 관광 '공산주의 향수 찾는' 중국인 한국 대신 평양을 찾는다

32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넬슨 만델라와 북한 인권

"증오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6 현장중계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北은 핵탄두 표준화, 美는 선제공격 검토·· 우리는 어떤 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

40 글로벌 평통

한미 평화통일포럼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44 기획포럼

평화통일 대토론회

종교로 북한 인권 회복, 의료로 북한 건강 회복!

46 현장취재

2016 중학생 통일골든벨

지금은 골든벨, 다음엔 통일벨을 울린다

48 뉴스 & 민주평통

한중 평화통일포럼

'한반도 통일과 한중협력' 논의 • 경북 영천시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 제주지역회의, 마이애미협의회

60 협의회 탐방

서울 강동구협의회

"통일운동이 막연하다고? 생활밀착형으로 하면 돼! 결국은 사람이야"

62 통일 문화유산

종묘(宗廟)

백설이 만든 神들의 정원

66 통일 칼럼

더 이상의 뮌헨협정은 없다



표지 이야기

11월 18일 서울지역회의가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 서 개최한 2016 중학생 통일 골든벨 대회.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통권 제11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진하, 박인휘, 이희옥, 조봉현, 최우선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계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 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주요 언론들의 전망이 무색하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정책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기 마련이지만, 트럼프 행정 부의 정책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공 직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인 데다 공약이 파격적이고 공화당과도 거리를 둔 '이단야'이 기 때문이다.

파격적이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그의 대 외정책 방향이다. 자신의 조부도 독일에서 미 국으로 온 이주민인 그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며 미국의 뿌리인 이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칙의 국제적 투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도전했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미국에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하고 더 많은 방위비 분 담금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 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상을 지탱해준 동맹체제

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놓고 우려가 높 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파격적인 정책 공약은 실천에 옮겨질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 성향, 그가 읽고 호소한 표심, 공약이 정책으로 전환돼 추진되는 과정에서 작용할 안팎의 제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및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역임. 중앙대 국가대 전략연구소장,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역서〈20년의 위 기〉、〈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

첫째,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 파격적이고 평소 그의 행실이 부도덕하더라도, 그가 성 공한 사업가이며, 당내 경선과 전국 선거에 서 이겨 대통령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이는 뛰어난 지능과 카리스마를 보유하 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가로서의 배경과 그 의 행태를 감안하면, 좋게 말해서 그는 실용 주의자(Pragmatist)이며 나쁘게 말해서 포퓰 리스트(Populist)이다.

트럼프 그는 포퓰리스트인가

둘째, 포퓰리스트로서 그가 읽고 호소한 미국의 표심은 '분노'다. 그가 대중 득표수에서 지고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이긴 이유는 전통적인 공업지대로 노동조합이 강해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오대호 주변의 3개주, 즉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표심이 돌아선 탓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밀려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 분노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했다

그 같은 표심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같은 움직임은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독일과 더불어 EU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에서 특히 강해, 자칫 EU의 존속이 문제시될지도 모른다.



한때 시대정신을 이루었던 개방적 국제주의가 쇠퇴하고 폐쇄적 민족주의가 득세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파격적 공약(公約)을 포퓰리스트적 공약(空約)으로 단정하기엔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명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입각 후 보자를 보면 강경한 공약들이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인종차별주의자라 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 원이 법무장관에, 이슬람 극단주의가 존망적 위협이라고 한 전 국방부 정보국장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이 국가안보보좌관에, 고문 수사를 금지한 오바마 대통령을 맹비난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이 중앙정보국(CIA) 국 장에 지명됐다.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맡았던 대표적 강경론자 존 볼튼이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도 만만치 않다. 우선 그는 선 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통해 동원 한 지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그가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사건건 의회 의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의 기

런던의 퇴역군인 요양원 인 첼시 왕립병원에 마련 된 국민투표장으로 가는 영국의 퇴역군인들, 영국

한 것은 유럽에 의한 러 시아 견제가 어렵다는 암

우리는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국이 만든 큰 구조를 읽고 그 속에서 국가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율이 약한 미국에서는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밑천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2008년 선거에서 내주었던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지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현재 지명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각료 들도 공화당 주류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 는 만큼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 책이 공화당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과 갈등할 것인가

무엇보다 지정학적 요소가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 고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해 국내 경기를 활 성화하는 한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을 늘리겠다는 그의 공약은 국가전략의 입장 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 국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 했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세력균형 정치를 통해 굴러가도록 방관하고 그 균형이 결정적으로 붕괴하지 않으면 개입을 자제한다. 그렇게 하면 안으로는 힘을 축적하고 밖으로는 경쟁국이 힘을 소모해 궁극적으로 미국에이익이 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그 같은 국가전략의 결실이다.

역외균형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 직후 유럽에서 철수해, 유럽 국가들이 약화된 구소련을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아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중동에도 개입을 자제하고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독

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거론 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안 되 면 철수하겠다고 한 소리는 바로 그런 맥락 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적 조치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분열된 유럽이 푸틴 치하에서 전열을 정비한 러시아 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 문이다. 이라크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은 중동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실책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문제이다. 동아시 아에서 일본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에는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다.

트럼프, 그는 제2의 카터가 될 것인가

그런 구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느낄 것이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같은 나라로 하여금 세계 경제규칙을 쓰게 할수 없다"며 전략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TPP가 좌초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성공하면 국제 무역질서 속에서 중국 주도권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수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무역 다변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럴수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것이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다면 한국의 여론이 중국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조뿐만 아니라 상황적 변수도 있다. 카 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은 냉전이 라는 구조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의 계획도 북핵



임진강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군의 도하훈련. 트럼 프는 주한미군을 감축하 며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을 올릴 것인가. 문제라는 변수에 밀렸다. 가장 큰 상황적 변수 중 하나가 북한이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중 북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될 정도가 되면, 그리고 그 행태가여전히 도발적이라면 북핵 문제가 위기로 부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지율이 부진한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국제 위기다.

우리는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큰 구조를 읽고 그 속에서 국가전 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 다. NUAC

2016 DECEMBER 9

8

사드 이후의 한중관계

혁명 시대엔 북한, 건설 시대엔 한국… 지금은 '시진핑의 입'에 주목할 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다른 쪽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중국의 역내 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올해 중국 국경절 연휴 때 서울 롯데 백화점 면세점을 가득 채운 유커들. 한중관계는 손 쉽게 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한중 수교 사반세기를 앞둔 시점이다. 한중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지난 24년 동안 한중관계는 몇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도 '내실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012년 한국과 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중관계는 최고지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 한국지도자는 2015년 9월 국내외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한중 간 경제·무역 교류도 활발하고, 민간 교류 등 인적 교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수입과 수출 모두 중국은 첫 번째 파트너가 됐다. 중국 국가여유국 (國家旅遊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중국 국경절 기간(10 월 1~7일) 중국인 단체 여행객 139만9000여 명이 해외 여행에 나섰는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한국 유관기관에서는 그 기간 20여만 명의 중 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러시아, 태 국, 대만을 제치고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것이다.

우리가 일깨워준 중국의 보복조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국경절 특수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관광시장 호전으로 한국이 사 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 이 있다.

지난 10월 13일 중국은 이른바 '불합리한 저가 관광'을 줄이겠다는 통지를 발표하고 관광객 수를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소비세 관련 정책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도 했다. 이는 중국의 내수시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한국 에서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우려가 회자됐다.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는 인터 넷과 민족주의 색채가 농후한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보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



양간용 성교중국연구소 연구식장

중국 부난대 성지학 박사: 국민대 중국인문사 회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 소 연구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 소 교수, 충남 경제비전위원회 자문위원. 공저 〈한중관계의 재구성: 과거를 넘어 미래로〉

여다보면 한국에서 회자되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논 의를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너무 앞서가면서 그 논의가 그대로 중국에 흡수되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 다. 우리가 적극 나서서 중국의 '보복조치'를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는 점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 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여러 형태 의 교류가 일시적 혹은 무기한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 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중단을 거론한 것 은 극히 적었다. 지방정부까지 하달되는 경우는 더 드 물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형국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을 줄이 겠다는 분명한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발표 전후로 몇 달간의 외국인 입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의 한국 입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올 7월 외국인 입국자는 171만8561명으로 전월보다 9.9%(15만5218명) 증가했다. 전월 대비 중국인 20.9%(16만1668명), 일본인 3.4%(6252명), 필리 핀인 7.0%(3539명)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8월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는 168만 7894명으로 전월 대비 1.8%(3만667명) 감소했다. 특히 전월 대비 중국인은 4.3%(3만9833명)나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9월에도 이어져 외국인 입국자는 153만9610명

월별 중국인 입국 규모

	2016년 7월	2016년 8월	2016년 9월
외국인 입국자	171만8561	168만7894	153만9610명
중국인 증감 추이	16만1668명 증가 (전월 대비 20.9% 증가)	3만9833명 감소 (전월 대비 4,3% 감소)	14만8029명 감소 (전월 대비 16.5% 감소)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6년 7, 8, 9월호)

으로 전월 대비 8.8%(14만8284명) 감소했다. 중국인은 16.5%(14만8029명)나 감소했다 8월에는 새 학기를 맞 아 유학 수요가 증가해 감소폭이 미약했지만, 9월 들어 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한 외국인 감소 추세는 국 내 입국하는 중국인의 감소에 큰 영향 을 받은 것으로,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 유임을 알 수 있다. 일시적인 계절적 수요 변화를 감안해야 하지만 7월 이 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시장 동향 자 료도 7월을 기점으로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추세는 연말로 갈수록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지라 는 점이 이미 보편적으로 중국인들에 게 각인돼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감 소 추세가 사드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현재 내 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전환을 모 색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내 관광 시장 개발이 해외여행 수요를 일시적 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불합리한 저 가 관광시장' 정책 조정도 이제 막 시 작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꾸준히 격상 해왔다. 양국은 경제·무역뿐만 아니라 인문 교류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인적 교류를 지속하며 '돌이킬 수 없는'



중국 국경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 유커들.

2016년 한국 입국 중국 관광객 추이 (단위:명) 출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 동향(8, 9, 10월호) (인원) 1,000,000 900 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총량 633만4312 52만1981 54만6408 60만1671 68만2318 70만5844 75만8534 91만7519 87만3771 72만6266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은 지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변화를 겪으 진 것이 사실이다. 면서 일시적인 조정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망을 탄 타히 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시진핑의 '말(言)의 정치'에 대비하라

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 지역 내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신뢰하는 국가관계 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라는 정책 전화으 로 상호 기대치와 수준에 대한 혼란과 우려도 공존하 가능하다. 고 있다.

한중 양국은 기존의 좋은 관계는 유지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오래 시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대립적 논 의를 이어가는 '머들 스루(Muddle Through)' 관계에 들 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과 혁명의 단 계. 등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가 경제를 키우는 건설 의 시대를 거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고 한다. 혁명 과 건국의 시대에 중국은 북한이라는 혈맹이 필요했다.

건설의 시대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발 전 모델이 필요했다. 그리고 시진핑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지금. 남북한의 중요성은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

그렇다고 과거 쌓아온 관계를 버리지는 않는다. 한반 도의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은 이러한 틀로 볼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는 심화해가면서 갈등 양상이 벌어 질 때는 중국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되는 상황을 만들려 할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도 불 한국과 중국은 매우 깊은 관계로 진입하는 중이고 구하고 한국은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며. 중국 또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이다. 이는 정부 간 관계가 다소 소원하더라도 한중관계의 기본 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믿음이 있기에

> 시진핑은 지난 18기 6중전회에서 당내에서 '핵심' 지 위를 공식적으로 추인받았다. '핵심'이라는 것은 정책과 인사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 큼 시진핑 주석 개인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 하다

> 이는 한국과의 관계 변화가 최고지도자의 '입언(立言)' 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한중관 계가 '입언의 정치'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 면, 우리도 '말의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중관계를 굳건히 정립하는 '입언'의 묘안이 필요한 시 점이다. NUAC



지난 10월 19일 한국과 미국은 외교·국방장관(2+2)회 의를 열어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 위협이 더욱 커지는 지금 확장억제만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국제사회의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이 날로 커져가면서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자체 핵무장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론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현재의 그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은 오직 핵무기를 이용한 대량보복 위협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핵 보복의 개념은 핵 공격을 받고 보복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핵 보복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적의 핵 공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은 가공할 피해를 남기기에 공격을 받으면 대량보복을 해도 그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적에게 '그대가 핵 공격을 하기 전에 핵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핵 보복 능력으로 가장 확실하고 급진적인 주장은 핵무장론이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정치학 교수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 박사. 2015 동북아협력 대화(NEACD) 한국 대표 역임. 현재 국방대 안 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장, 국제정치학 회 기획이사, 정치외교사학회 총무이사, 코리 아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공저에 〈국가안보론〉, 〈전쟁론〉 등이 있다.

우리가 핵과 핵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핵 보복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핵무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핵무장은, 불가피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자체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걸린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느냐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핵 확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자체 개발 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핵무기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각오해야만 한다. 대 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핵무장에 따른 국제 제재를 견뎌내기 힘들 수 있다.

핵무장론이 비현실적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핵확산금 지조약(NPT)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필 요한 핵물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 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 협상력을 강화하가 위해 핵무장 론을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

둘째, 핵무장론에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 핵무장보다 더 어렵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치 자체가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술핵의 한반도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 개발에 대한 명분과 면죄 부를 줄 수도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미 국의 비확산 리더십은 훼손된다.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를



한국의 핵무장론을 무마하려는 눈가림이라는 '불신'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관리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다. 이번 미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다. 확장억제란 핵 보유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핵 보 유국이 핵 억제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맹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어떠한 핵무기에도 압도적으로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2+2회담을 갖고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 체(EDSCG)'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략협의체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대한 거시적 전 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한미는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차관보급 기구인 억제전략위원회에서 확장억제 문 제를 담당해왔다. 신설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국 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참여하고. 격도 차관급으로 높였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확장억제 문제를 전략 적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1960년대부터 활동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 장억제 장치와 비슷하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양 국과 동북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떠 한 종류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확장억제는 말 그대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은 미국 본토 방어에 준하는 방어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선언에 불과하기에 손에 잡히는 물리적 조치는 없다. 억제(Deterrence) 개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확장억제 선언은 상대방에게 '보복의 신뢰'를 제공 하는 데 미흡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억제는 '보복을 한다'는 확신을 적 에게 제공해. 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논의한 것이 핵무장이나 핵무기 배치이다. 확장억제 는 핵무기의 배치가 없으니 '말의 성찬'이 되고 만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확장억제마저 '신뢰성' 문제를 갖고 있다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미국 당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장억 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필자도 미국의 해군대학원 관계자와 마크 리퍼트 주 한 미국대사를 면담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져 확고한 의 한미 양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에서 미국 확장억 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존재하

니. 그 실행력을 '가시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미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전략무기와 그 부대를 한반 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것이다. 미국 바크스테일 공 군기지나 괌 기지에 배치돼 있는 B-1B 장거리 전략폭 격기나 B-2.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한다면 신뢰에 대한 불안 문제는 다소 해소 될 것이다.

미국은 왜 순화배치 명문화 반대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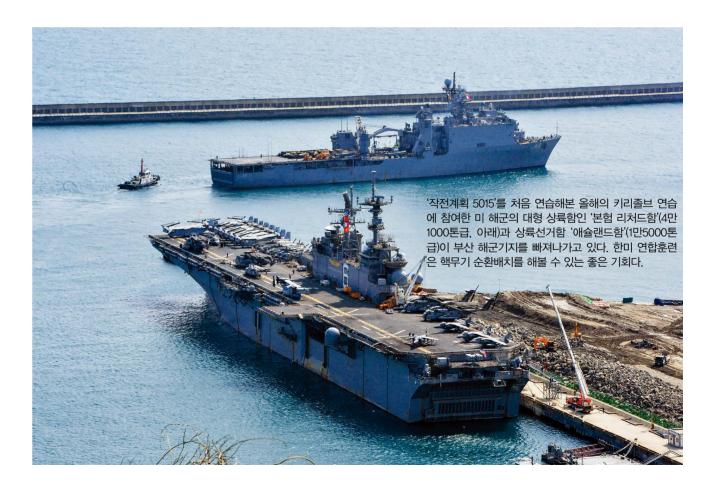
이번 2+2회담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확장억제의 실행 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적으로 순화배치하는 방안을 혐의했지만 아쉽게도 명확 다 EDSCG가 핵 문제에 대해 논의만 하는 혐의체에 머 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설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 체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기구이지만, 한국 에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토의 핵 계획그룹(NPG)은 27개국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NUAC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핵 관련 계획을 작성

우리의 EDSCG는 '혐의그룹(Consultation Group)'이 지만 나토의 NPG는 '기획그룹(Planning Group)'이다. 협의와 기획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익을 우선하고 고립주의적 성 향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반복하자면 억제 는 '신뢰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으 니 동맹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완화하려고 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러한 시도만으로도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손상이 간 물게 되면 EDSCG는 거세지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무마하려는 눈가림이라는 '불신'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 다면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는





2017년의 김정은을 알려면 2016년 김정은이 내건 목표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2016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내건 목표를 북한이 어떻게 달성해갔는지 분석한다.

> 2016년 김정은 신년사를 전문과 함께 보도한 노동신문.

2016년 김정은은 신년사 구호로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 어나가자!'를 제시했다. 이 구호의 키워드는 '제7차 노동 당 대회'와 '강성국가',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전 4년간 김정은이 내세운 구호는 '백두의 혁명정 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 나서자'(2015년),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자'(2014년), '우 주를 정복한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 면을 열어나가자'(2013년),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 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 자'(2012년) 등이었다.

김정은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 '강성부흥의 전성기'→'경제강국 건설'→'강성국가 건설'→'총공격전'을 거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독려했다. 2016년을 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했던 것이다. 경제강국 건설로 출발해 강성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펼쳐 2016년에는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만들어나가자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국가 발전 구호를 내놓았던 셈이다.

제7차 당대회 개최로 강국의 '최전성기' 꿈꿨다

김정은이 말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까지 북한 당국이 표방해온 강성대국의 의미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을 정치·사상강국, 군사 강국, 경제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로 만들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개최와 핵실험 및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정치사상 공고화를 위한 인민대중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과 당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편으로 당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7차 당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 개최를 통해 정치·사상강국 건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프랑스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 한연구실장·통일연구센터 소장, 경찰청 대테 러 전문위원, 미국 존홉킨스대 SAIS 초빙연구 원 등 역임, 현재 북한 미래포럼 대표

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당국가 체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제7차 당대회 개최를 선언하고, 당대회 대비를 위한 각종 노력과 조치들을 취해왔다. 당조직 활성화를 통해 집단주의적 경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으로 인민대중들의 혁명적 열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2016년 신년사에서 그는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 주의 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 위력" 이라 강조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 이 익, 당과 혁명 이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 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성 시대에 집단주의적 생산경쟁으로 시작된 천리 마 운동을 전개한 것과 같이 김정은이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각종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7차 당대회 이전에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70일 전투에 이어 제7차 당대회 이후 만리마 속도 운동을 새로 전개했다.

천리마 운동은 강제적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운동이다. 이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으로 발전돼왔다. 천리마 운동은 단순히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부문의 성과만을 목표로 한 것이아니라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해 그들의 혁명적 열성을 높이는 정치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당을 통한 사상교양과 사상 개조로 주민들을 '수령의 당' 주위에 묶어세움으로써 1인 독재체제를



올해 2월 은하-3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방과 과학 정책에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추진했다.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의 속도전은 당의 군중노선 논리 에서 나왔다. 북한의 군중노선은 당 조직을 통해서 인민 대중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여 각종 사업에 대 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군중노선은 물질적 동기를 유발하는 합리적 또는 경 제적 요인을 등한시하는 반면. 정치사업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당이 직접 인민대중 속으로 들어가 각종 정치적 교양과 사상 개조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핵·미사일 도발로 강성국가 건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바탕으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및 전투동원태세를 강 조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을 개발할 것을 주문 했다. 김정은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로 그에 대한 군대의 유일적 영군(領軍)체계를 다져 군사강국을 건설 하고자 한다.

도 강화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를 참관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절 대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그 예다. 지난 9월 6일에는 전 략군 화성(미사일) 포병부대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발사훈련은 성능을 개량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 일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 검토하고, 화성 포병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검열하 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발사후련 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 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체적 핵무 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군사적 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데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3일 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이제까지의 요소기술 개발 수준 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핵탄두 실험 단계로 들어서게 됨 이에 더해 군사강국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물리력 으로써 핵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전제되는 수준으

2016년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개최와 핵실험.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의 치밀한 계획과 의지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 도발할 것이다.

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김정은 시대의 핵심 정책노선으로 '자주', '선군', '사회 주의'가 자리 잡았다. 2016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적 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 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 다 자주 원칙에 따라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 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 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 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 가 기대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 쇄했다

개혁·개방은 여전히 거부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대외 경제관계를 다 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 다"고 밝혀 대외 개방의 정책적 의지를 어느 정도 피력 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신년사에서는 대외 경제관계 관련 내 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 가 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 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 다"고 역설해 개방을 통한 개혁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세 를 격지했다.

선군에 기초한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군사강국 건설' 구호와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를 통한 '정치·사상강국 건 설' 구호는 결국 인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감행한 네 차례의 핵실험으



지난 8월 대동강 돼지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김정은은 "고기 가공품 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북한 주민의 주린 배는 채워주지 못했다.

로 유엔 안보리는 사상 유례 없이 강한 대북 제재 결의 아이 2270호를 채택했다. 한국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 했는가 하면 해운. 금융.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해외 여행객들로 하여금 식당과 같은 북한의 해외 '달러 벌이' 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미국은 더욱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위해 신규 행 정명령 13722호를 발표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유린 과 해외 노동자 송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과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처를 포함 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본도 해운과 금융 통제 강화, 인적 교류 규제 확대 등과 같은 대북 제재의 시행에 돌입했다. 유럽연합(EU) 도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나섰다. EU는 북한 정부와 군 수뇌부 실세가 포함된 신규 제재 대상을 발표 했고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 적인 대북 독자 제재조처를 내놓았다.

이는 결국 북한의 외화 부족을 포함한 경제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NU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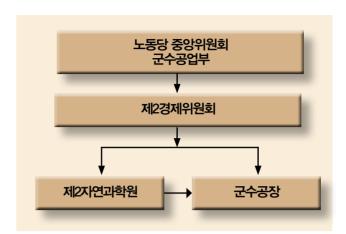


해커부대가 빼낸 비밀을 활용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약에 걸리지 않는 상용(商用) 전자부품을 사용해핵과 미사일을 주체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비밀을 공개한다.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인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운영체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가 지휘한다.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 제2경제위원회 가 무기와 장비의 기획, 연구개발, 자금 조달, 그리고 장 비의 생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2경제위원회가 기획한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이 맡는다.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와 장 비의 생산은 각 군수공장이 담당한다. 내각은 군수용 전 력과 자재 공급을 제공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는 계획총국, 기술총국, 건설총국, 생산총국 등 분야별 총국을 두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개 발, 생산, 분배, 대외무역 등을 수행한다. 자재 수입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자재상사와 수입상사가 맡아 외 국에서 물자를 사들인다. 룡악산, 창광, 연봉 등의 무역 회사가 그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들은 자재 수입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의 수출도 담당하고 있다.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은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 산하 7개의 분야별 기계공업국이 담당한다. 제1국은 소화기(小火器)를 비롯한 경형(輕型)무기와 탄약, 일반 군사장비를 담당한다. 제2국은 전차, 장갑전투차량, 군용트럭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동발사대(TEL)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국은 대포와 대공포, 자주포, 다연장로켓을, 제4국은 모든 미사일 개발을, 제5국은 핵과 생화학무기, 제6국은 함정과 잠수함 등 해군 관련 장비, 제7국은 통신장비와 항공기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와 제2자연과학원이 핵심

북한군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과 거 국방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산 하에 약 60여 개의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있다. 평양에 있는 본부에는 공학연구소, 정밀기계연구소, 금속재료 연구소, 탱크연구소, 전자연구소, 유도탄부 등 13개가 있다. 나머지 연구소는 지방에 흩어져 있다. 신포에 해 군선박설계연구소, 남포에 해군전자전연구소 등이 있는 것이다. 제2자연과학원 산하 인력은 연구사 2만여 명을 비롯해 실험조수와 시제품 생산을 위한 노동자 등 모두 6만~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자연과학원의 연구개발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무기 및 장비를 연구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심사국의 심사를 거친 후, 제2경제위원회의 대량생산 지령이 떨어지면 각 군수공장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 정책학 박사. 국방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역임. 현재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겸임교 수, YTN 객원해설위원. 공저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북한 의 대내외 정책 및 전망-김일성·김정일 시대 와 비교〉 등

이 생산해 인민무력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 산하에서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은 20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 공장인데, 군수품도 생산하는 민수 겸용 공장이 있다. '일용공장'이라고 하는 이 공장은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은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이 50만~60만여 명 정도이고, 일용공장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가장 큰 탄약공장은 종업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비밀 유지를 위해 26호, 93호, 351호 등 숫자로 돼 있다. 93호 공장은 저격무기탄 공장, 26호는 방사포탄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 식이다. 핵심 군수공장들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산간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다. 전시를 대비해 대부분 갱도 안에서 군수물품을 생산한다. 갱도 안에 다시 여러 갈래의 갱도를 뚫어 각 갱도에 1직장, 2직장, 조립직장 등이 위치한다. 갱도임에도 불구하고 환풍기와 습도조절장치들은 대체로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업무는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직접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군수공업국 산하 131 지도국을 통해 지휘한다. 131지도국이 내각과 영변 핵연구센터에 속해 있는 관련 부서를 통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각 소속의 원자력총국은 우라늄을 채굴해 우라늄 정 광(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담당한다. 내각의 전 자공업성은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의 해외 조달을 맡고 있다. 영변 핵연구센터는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한다. 핵무기의 생산과 조립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개발은 제2경제위원회 제4국에서 총괄 지휘 한다. 스커드 B·C, 노동, 무수단 등 모든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험과 생산을 관장하다. 미사일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 산하의 미사일부 와 전자 및 제어유도계통 연구소, 공정연구소 등 각 연 구소가 담당한다. 미사일 생산은 제4기계공업국 지도하 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맡는다. 이들은 기업연합군을 형성해 미사일 세부 계통과 부속품을 생산하고 조립까 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갱도공장에서 무기 생산

북한은 광복 직후부터 '군비 지향형 중공업 우선정책' 을 추진해왔다. 1970년대 각종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해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80 년대에는 독자 설계로 재래식 무기체계를 상당한 수준 까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4

의권이 붕괴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도입하지 못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전반적으로 낙후되게 되었다 그에 따 라 북한군 전력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 시기 한미 연합전력은 현대화와 첨단화 를 달렸다

그러한 상황에 맞서 대(對)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 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 강화에 주력했다. 비대칭전력 증강 전략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 을 감행하고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960년대 구소련의 지원으로 핵 개발을 시작 했다. 지금은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 요한 첨단 기술과 자재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사회주 핵단두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평안북도에 건설된 북한의 로켓 발사장 (왼쪽), 농축과 재처 리는 물론이고 핵무 기 제조시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 변의 핵시설(오른 쪽).

사진 출처 38노스

발사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 회는 북한이 핵 개발 관련 기술과 자재 등을 어떻게 확 보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왔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많 은 정보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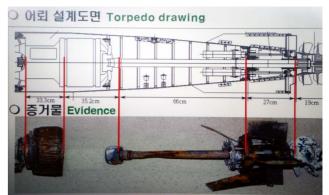
구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2005년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 통령이 파키스탄 핵 개발의 주역인 핵물리학자 압둘 칸 박사가 핵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의 문들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왜 북·중 밀무역을 차단해야 하는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한 데는 상용기술의 첨단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 해커 부대의 활약이 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북 한의 밀무역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2년 12월 북한 이 발사한 은하-3호의 추진체를 우리 군이 인양해 분석 한 결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약 등 국 제사회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 전자부품을 대거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북한 해커부대들은 핵 관련 기술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기술도 해킹으로 확보하고 있다 는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9월 중국의 흥샹그룹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 한 물품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북·중 간 의 밀무역이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 착됐다. 훙샹그룹은 그동안 고순도 알루미늄,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파라텅스테이트. 산화알루미늄. 3산화텅 스텐 등을 북한에 수출했다. 이 물품들은 북한의 핵 미 사일 개발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이다. 이 물자들은 압록강 밀무역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 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 들이 다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 내막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 는 흥샹그룹과 같은 기업들을 제재해 핵심 부품들이 북 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용(商用) 전자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아래)와 동형으로 판단된 북한의 CHT-02D 어 뢰의 개략 설계도면(위). 이 개략 설계도면은 북한 수출무기 카탈로그 에 있는 것으로 우리 군 정보당국이 입수한 것이다. 무기 수출은 북한 의 주요한 자금줄이다.



2013년 해군이 서해에서 인양해낸 북한의 은하-3호 1단의 잔해. 이 잔 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국제 규제가 없는 상용(商用)품으로 로켓을 제작한 것이 밝혀졌다.

부품을 수출통제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했 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NUAC

탈북민 3만 시대

먼저 온 통일, 먼저 해보는 통합 탈북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에 비하면 탈북민의 재입북은 새 발의 피다. 이민자가 먼저 간 이민자에 의지해 정착을 하듯, 탈북민도 선배 탈북민에 의지해 정착하니 서툴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1일 7명의 탈북민이 입국해 누적 탈북민수가 총 3만5명이 됐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1962년 최초 귀순자가 발생한 이래 2006년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에 이어 올해 3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북한 인구가 약 2400만여 명이니, 탈북민 3만 명은 북한 인구 1000명당 1,25명꼴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남한 주민 1000명 중 1명이 북한으로 갔다고 바 꾸어 생각해보면 탈북민의 증가가 북한 당국에 어떤 의 미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 때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은 탈북민의 존재를 알리는 것 을 매우 두려워했고 주민들에게 숨겨왔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2중 3중으로 감시망을 늘리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되돌아간' 탈북민을 기 자회견장에 내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빌려 탈북민의 비참한 처지, 썩고 병든 한국 사회 등을 비난하는 구차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했다.

이민자보다 어려운 탈북민 정착

대중매체는 탈북민 정착의 어려움을 많이 다룬다. 물론 탈북민의 처지는 한국 주민에 비해 어렵다. 그러 나 지방에서 서울에 와도 정착하기 어려운데, 낯선 땅 에 이주해서 사는 탈북민이 어렵지 않다면 오히려 이 상할 것이다. 탈북민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중국으로 나왔고, 또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이다.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에 탈북민은 이민자와 다르다. 이민자는 가려는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떠나 지만 탈북민은 한국의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들어 온다. 탈북민이 접한 한국은 북한과 너무나 다르다. 북 한은 너무 많은 면에서 한국에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물건 이름과 값, 패션과 같은 초 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보적인 것에서부터 직업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탈북민의 한국 정착은 '면 새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쉽 합'이라는 데에서 중요한 의 지 않다. 한국의 어른이 성인인 탈북민을 어린아이로 취 벽 해체를 계기로 통일을 이 급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 책선이 무너지면 당장 통일 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한국에 정착한다.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일성종합대 철학과 졸업. 북한 청진의학대학 철학교원 역임. 2004년 탈북,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 민주평통 상임위 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이민자 정착의 핵심은 경제적 정착이다. 현재 탈북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1.4%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에 비해 일자리의 질도 낮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일반 주민의 배가 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일반 주민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도일반 주민은 40.7시간인데 비해 탈북민은 47.1시간으로6.4시간더일하지만, 소득은 2014년평균141만4000원으로일반국민평균323만원의43.7%에불과하다.

학교 적응도 어렵다.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률은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개선됐지만, 일반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6배,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7배나 중단률이 높다. 탈북 대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9.8%, 전문대생은 10%로 역시 일반 대학생의 학업 중단률 6.4%. 일반 전문대생의 7.5%보다 높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다수 탈북민은 한국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남북하나재단이 2015 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의 생활 만족도는 만족 63.8%, 보통 32.8%, 불만족 3.5%였다. 이 만족도는 약 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2014년 한국 주민의 생활 만족 도 4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한 해에 3000~4000명된다. 이를 감안하면탈북민 중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은 '먼저 온 통일', '먼저 해보는 통합'이라는 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1990년 장벽 해체를 계기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을 보며 우리도 철책선이 무너지면 당장 통일될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상상했다.

먼저 온 이민자의 도움으로 정착하는 것은 이민자 정착의 일반적 경향이다. 탈북민도 마찬가지다.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의 성공을 돕고. 성공한 탈북민의 수를 확대하며, 탈북민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탈북민 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이 겪는 정치·경제적 혼란을 탈북자의 대량 입국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탈북민이 남 한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남북의 통일도 쉽게 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탈북자 재입북 높은 비율 아니다

탈북민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는 통일을 민족 최대 의 숙워이라고 가르친다.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을 생각 하므로 통일대전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심어주기 위 해 사상교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하나원 교육생들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홀몸노인의 집을 방문해 탈북민이 손맛으로 만 든 음식을 건네고 있다. 나보다 어려운 이를 도움으로써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 초기에는, 통일비 보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을 따지는 한국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해 두해 살아가면서 남북이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쉽 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2016년 통일연구 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착기간이 늘수록 한국 체제로 통일하는 것보다 두 체제를 절충하거나 제3 체제로 통 일하자는 탈북민의 비율이 높아졌다. 급진적 통일보다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탈북민이 많아진 것이다.

> 하나재단의 조사(2015년)에 따르면 탈북민이 한국 정 착에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61.3%)이었다. 그다음이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4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

> > (30.9%) 순이었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이 겪게 될 어려움 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늘고 있 다. 그러나 통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피하고 싶으면 피함 수 있 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숙명 이다. 상당 기간 국가를 단위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통일이 한반도 미래를 위해 유익하고 필요하다 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른다. 먼 장래일 수도 있지만 당장 될 수



민주평통 부산 사하구협의회가 마련한 통일 수다방. 남북의 주부들이 흉금을 터놓고 만나는 자리다. 민주평통은 도처에서 탈북민과 하나 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한다. 탈북민 정착 은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탈북민을 통해 우리는 북 한과 북한 주민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 우게 된다. 탈북민이 이 땅에 정착한 경험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모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

성공한 탈북민의 수를 늘려라

정부와 시민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탈북 민의 정착이 순조롭지 못한 데 대해 실망하는 탈북민들 이 적지 않다. 그러나 탈북민의 정착 과정은 많은 시간 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경우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10년이 지나서야 동독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20년 이 지나서야 동독이 서독의 80~90% 수준에 올라섰다.

매해 입국하므로 올해도 내년에도 탈북민의 정착은 현 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탈북민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NUAC

도 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도 있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

탈북민 정착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이는 직접 정착을 해본 탈북민이다 새로 입국한 탈북민은 낯선 남한 주 민보다 먼저 온 탈북민의 말을 더 믿는다. 조사에 따르 면 탈북민의 구직 경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인 소개에 의한 취업이다. 취직을 하려면 남한 주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에도 탈북민은 같은 탈북민인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47.3%를 차지했다. 먼저 입국한 이민자의 도움으로 정 착하는 것은 이민자 정착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탈북민 정착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탈북민 사 회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탈북민 개인에 따라 정착 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열심히 정착하기 위해 그러나 탈북민의 입국이 곧 통일이 아니다. 탈북민은 노력하는 탈북민의 성공을 돕고 성공한 탈북민의 수를 확대하며 탈북민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유엔 제재 뚫는 '대인기' 북한 관광

'공산주의 향수 찾는' 중국인, 한국 대신 평양으로 몰려간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교묘한 방해는 북한 관광 활성화일 수 있다. 유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평화 공세를 펼칠 것이다.



최근 평양에서는 경비행기로 평양 시내를 돌아보는 관광 상품이 인기라고 한다. 7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시간에 따라 65~150달러 로 팔리고 있는데. 3개월여 동안 수백 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그보다 10분의 1 싸게 이용한 북한 주민의 수는 같은 기간 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기 수요가 많아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1~2시간 이 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올해 7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 했다는 단둥의 '신의주 반나절 관광'도 하루 수백 명에서 1000여 명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10월 지린성 옌볜조선

명이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으로 1박 2일 관광을 다녀왔 다. 이는 두 지역이 1984년 친선관계를 맺은 이후 30여 년 만에 본격화된 관광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관광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 성과 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 관광이 활성화된 것과 대조 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13일 중국 정부는 '불합리한 저가여행 정돈' 지침을 발표했다. 적시는 하지 않았으나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의 20% 정도를 줄이라는 암묵적 지시 족자치주의 안투현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50여 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

광객은 전년이나 전월 대비 성장률이 20%가량 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월 이후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방영을 금지 한 '한한령(限韓令)'과 방한 관광객의 감소와 연계된 패 키지로 읽혀진다. 중국은 한한령 등을 내린 것을 인정 하지 않는데. 하지 않고도 하게 하는 것은 중국 특유의 방식이다. 이를 보며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이 생겨난 다 북한 관광의 성과와 한국 관광과 한류에 대한 제재 는 사드 배치 결정 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인가 하는 문 제다

그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정은 체제 이후 '관광대박론'에 따라 북한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10월 평양을 방문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은 북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북한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 이다. 우리는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2012년 이미 23만 7000명에 이르렀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국 관광보다 저렴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4만6000명 선이 던 중국인 관광객은 2007년 5만1000명으로. 2차 핵실 험이 있었던 2009년 2만4000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13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적이 있었다. 북한 이 4. 5차 핵실험을 한 올해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문에 뛰다. 이 늘고 있는 것은 예사로이 볼 수가 없다.

북한은 전통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국제 제재로 위축 되자 관광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012년의 김정은 시대는 마식령 스키장과 대관령 삼양목장의 2.5배라는 세포등판 조성(강원도 세포군의 구릉지대 개발)으로 시 작되었다. 같은 해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도입했고. 중앙경제개발특구 5개소와 지방의 관광전용 경제개발구 9개를 지정·개발하였다. 2025년까지 우리 돈으로 8조5000억 원(78억 달러)을 유치해 금강산과 원 산 국제관광개발지대를 개발함으로써 연 100만 명 수준 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대 여가관광개발학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관 광공사 남북관광개선위원, 한국관광학회 부회 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관광연구단장

중국인들에게 북한 관광은 독특한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 수준으로 자본주의화된 중국인들 은 공산주의 옛 모습을 갖고 있는 북한 사회를 통해 향 수를 느끼며 '항미원조'의 기치로 참전해 북한을 구해냈 다는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깝고 저렴한 상 품 등이라는 점도 어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단기간 에 볼 수 있는 융·복합 테마관광도 집중적으로 개발하 고 있다. 2011년의 자전거 투어·골프 투어·자동차 관광· 주체사상 관광. 2012년의 산업관광·김일성 탄생 100주 년 기념관광. 2013년의 정치관광(우리 식 안보관광)·동 해안 철도관광·맥주공장관광. 2014년의 노동체험 관 광·묘향산 캠핑관광·스키 투어·지하철 관광·프로레슬 링 관광·나선~연길 낚시관광 축전 등이 그것이다. 이 러한 관광 행태는 중국의 북한 관광 전문여행사인 고려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략적인 내용만 보면 9월 평양국제영화제 투어, 10월 노동당 설립일 기 념 투어 11월 저예산 김치투어 2월 김정일 생일기념 투어. 4월 평양 마라톤 투어와 김일성 생일 투어 등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유엔 안 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언제 채택되고 그것이 북한 의 추가 도발을 제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문제는 민생을 고려한 예외 조항에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포함되느냐이다. 현재까지는 관광에 대한 언급 이 없으니.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뒷문 으로는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확대할 수도 있다.

미국 대선 결과나 국내 정치 상황 등을 볼 때 북한은 조만간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까 지는 어렵다고 해도 북·중 접경의 관광 증대 명분을 확 보할 것으로 보인다. NUAC

넬슨 만델라와 북한 인권

"증오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분에 따라 계급을 나눠놓고 정치범수용소를 통해 잔혹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을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심금을 울리는 문학을 잉태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만델라의 우분트 정신이 남아공을 치유했듯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분리 차별정 책을 끝내고 백인과 흑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끈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인종차별 주의 정권하에서 27년간 복역했지만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합을 주장해, 증오와 복수심으로 치닫던 사회를 진정 시킴으로써 흑백 내전을 막아냈습니다.

만델라는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Long Walk To Freedom)〉에서 "자유로 안내하는 문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쓴 뿌리와 증오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감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 았다"라고 기록해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Ubuntu)'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남아공은 럭비 강국인데, 럭비는 백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남아공 럭비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에는 백인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상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인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럭비 월드컵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 인빅터스 (Invictus)'에는 만델라가 집권한 직후 남아공 팀이 우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델라와 '우분투' 정신

당연히 선수들은 백인들이었고 그들은 인종 차별을 뜻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문제의 그 유니폼을 입고 백인 선수들을 포옹하며 격려합니다. 영화는 만델라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유명한 흑백 분리 정책을 실행한 고(故) 핸드릭 버워드의 미망인을 방문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용서와 화합의 모습입니다.

그는 과거 청산을 사법으로만 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치유하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부분적 사면을 해줬습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되고, 가해자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도덕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리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 전제이며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도덕성 그리고 우선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원재천 소장·한동대 법학부 교수

미국 브루클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뉴 욕주 검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정 책교육국장, 법무부 국제형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 회 위원, 법제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인 권강사,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권선언으로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권리장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유엔 창설로 유엔헌장이 제정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인권선언이 근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에 의한 유태인과 소수자 학살을 본 국제사회는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와 보호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항을 모아 이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인권선언을 토대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을 만들었고 인종 차별과 여성, 아동, 고문, 난민, 장애 등 주제별 국제 인권규약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인권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권·사회권 규약, 여성 차별 철폐 규약, 어린이권리보호규약 등 핵심 인권규약에만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전 주민을 3개 부류, 51개 정치·사회적 계급으로 나눠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 심한 신분제도이고,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에 버금가는 정치·사회적 신분 차별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한번 결정된 신분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국군포로나 기독교인의 자손은 최하계급으로 분류돼 교육, 직업, 결혼,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습니다. 이들은 식량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으니 유엔헌장과 세계 인권선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 약(자유권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규약(사회권 규 약), 여성 차별 철폐 규약 그리고 어린이권리보호규약에 가입했습니다. 무력 분쟁 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 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제네바조약(제네바 협 정)'과 '전쟁 범죄 및 비인류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 용에 관한 조약(대량학살 협약)'도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의 굴라그(Gulag·정치사상범 강제노동 수용소)와 나치 강제수용소에 버금가는 정치범수용소에 국민의 1% 정도(약 20만 명)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철 화 씨의 〈수용소의 노래〉, 신동혁 씨의 〈세상 밖으로 나 오다〉라는 증언서와 통일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등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문과 신체 절단, 강제노동, 성폭 력, 특정 종교인의 멸절, 영아 살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 등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범은 그 가족 3대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서 강철환 씨는 아홉 살 때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고. 신동혁 씨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죄가 없는 어린이들을 처벌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것은 유엔의 자유권 규약, 어린이권 리보호규약은 물론이고 북한의 헌법과 형법도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나칠 수 없는 차별과 인권 침해의 예 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레용에 '살색'이 있



300년 만의 흑백 차별 정책 종식에 합의한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 민족 회의 의장(오른쪽)과 프레데릭 데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아파르트헤 이트' 폐지로 두 사람은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고,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였다.

었습니다. 단일민족으로 교육받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다문화 시대를 맞자 살색이 살색이 아니게 되 었습니다 결국 한 초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해. 그 색은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인권은 불온한 단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책과 단편영화를 제법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껜 경북대 로스쿨의 김두식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 〉를 권해드립니다 그 책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영화 가 차별과 편견 덩어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김 교수 는 액션영화 '30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그린 영화 '300'은 액션이 넘치고 재미있는 전쟁 역사 영화입니다. 그러 나 장애인을 비하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 은 갓난아이를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스파르타 조국을 배반한 악의 상징을 아무런 근거 없이 척추장애인으로 그러놓은 영화입니다."

아동·청소년용으로는 〈북한 아이들의 비밀일기〉를 추 천합니다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 으로 시작된 이 책은 북한 내 아이들의 실상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국제 구호 등 국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인 박경서 박사 의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를 권하고 싶습니다. 안경 화 교수의 〈법과 사회와 인권〉과 조효제 교수의 〈인권 의 문법〉도 일독을 바랍니다.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국이 돼야 합니다

북한은 최소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 없는 어린 이와 여성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임 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정 가섭을 해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을 그 집안 문화이거니 하고 놔 두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통 해 인권규범의 국가적인 내재화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 감할 수 있고 지키 기 워하는 국가 핵 심 가치로 결정해 야 합니다. 집안에 가훈이 있듯이. 국 가에도 국가원칙 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 면 국가 가치를 국 가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 표방하는 국가 워칙이 인가 존중 과 인권, 자유, 민 주. 법치 그리고 창조와 도전정신 이 아닌가 생각합



돌을 둥그렇게 쌓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바람과 비만 막도록 된 북한 남포시 근처의 정치범 수용소의 움집. 이 수용소 내에는 이러한 움집이 100여 개가 흩어져 있다(1997년).

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적 레토 대해 반성한 바도 있습니다. 릭(Rhetoric) 단계에서 보편적인 인권 논의로 이끌어나 가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 다. 우리는 북한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벨문학상을 기다리며

북한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제입니 다. 만델라가 '우분투' 정신으로 백인을 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 주민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저는 10년 안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학 작품은 북한 정치 범수용소를 다룬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 이 다른 인간을 박해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의 삶을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예제도가 폐지 된 데는 링컨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지만, 해리엇 비 문을 닫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처 스토가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큰 역할을 했습 니다. 우리는 〈안네의 일기〉를 통해 나치의 잔학성에 모두를 캠프에 초대합니다. NUAC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강제노동수용소 시절의 경험 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수용소 군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헤 르타 뮐러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의 고문과 인권 유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굶주림과 비단〉으로 그렸습 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단편소설집 〈고발〉은 북한의 작가가 '반디'라는 필명으로 쓴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과 성분의 굴레 안에서 억압당하는 북한의 실 상을 잔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와 국내외 작가들 을 모아 북한 인권 문화 캠프를 여는 것입니다. 700만 해외동포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탈북 작가들이 모여 북 한 인권을 논하고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문 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고난문학은 영혼을 정화하고 맑게 합니다. 여러분



19회째를 맞은 '남북관계 전무가 토론회'가 11월 4, 5일 전북 부안의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北은 핵탄두 표준화, 美는 선제공격 검토… 우리는 어떤 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

엄중한 시기 우리의 안보와 통일 해법을 찾기 위한 난상토론회가 전북 부안에서 열렸다. 강온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 하는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19회를 맞았다. 11월 4. 5일 전북 부안의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진행 된 이 토론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 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할 수 있는 진전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정 세는 전대미문이라 할 정도로 어렵고 험난하다"고 진단 하고.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북 한 전문가와 일반 정치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 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

라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 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북한 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 일구상'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 사회자인 조유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대북 제 재를 위해 어떤 결집이 필요할지. 비핵화를 위해 어떻게 국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데. 국내의 복잡한 상황에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오늘의 토론 내용은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중

국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 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하이 변화하기를 바라다'고 하면 하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0%가 넘고 그중 밀무역이 공무역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제대로 참여하고 이 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효과를 낼 수 없 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 미국과 형성한 관계에 대해 "글렌 슈나이더에 의하면 국가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을 맺지만, 동맹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 적과 적 대적 게임도 한다 북한이 적인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동맹국인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일 수 도 있다"며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4. 5차 핵실험을 한 것은 중국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적대적 게임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 미국을 상대로 적대적 게임을 해 미국이 군사전략적 반응을 하면 중국은 미국을 도전국으로 인식해 소위해 졌던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에 강경 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제안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전반적인 동 북아 구조는 미·중 간의 갈등구도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큰 틀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 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 대립하는 구도, 세부적으로는 군 사적·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중 갈등, 동북아 갈등을 심화하는 데 능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어떻게 협조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북한 문제 가 터지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악순화에 놓여 있다"면서 "대북 제재라는 명확한 대중국 홍보전략을 갖고 중국이 갖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 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은 "제재의 성격 은 첫째가 짓벌,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태도를 바꾸 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구분돼야 한다. 교섭이나 협력 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이 없으니 설득 논리를 못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

서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이 망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세 번이나 줬다 이렇게 해서는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 문 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달라졌다"면서 "5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전까지는 북핵 문제를 미·중관 계의 하부구조 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관 리 정도로 접근했다면. 그 후로는 미국의 안보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고, 북·미 간 및 북·일 간 관계 정상화와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 지워 등을 통한 평화 옵션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 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중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다는 것 인데 과연 가능하겠는가"고 반문하자.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무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한미 군사 옵션에 동 참할 수 없다면 오히려 중국에 군사적 부담을 강하게 안 겨주는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결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정민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는 중국의 대북 군사 제재 참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 경제의 손해 폭을 줄이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북핵 문제의 근원을 한국의 대 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대북정책 이 바뀌어서 북한이 변화한 게 아니다.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며 변 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역시 "북핵은 중국 에 안보 위협이 아닌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 현재 일 본이나 한국의 국력이 미국에 큰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설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원할 것인 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문제 를 활시위를 떠난 문제로 받아들여 확산을 막는 것에 주 력할 수 있다. 구소련의 핵 개발 초기 미국은 대량보복



민주평통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선도형 통일 방안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

서 구소련과 협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박종 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북 제재, 군사조치, 인권과 정보의 확산, 대화 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네 가지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우 리 또한 진영 논리에 휩싸이기보다 학계와 전무가들이 중립적이고 거국적인 제3의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 책 사이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과거 10 년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압박정책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에서 독립변수 는 북한이고 우리는 종속변수다. 이념을 떠난 남북 간의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응수 KBS 보도 국 북한부장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면서 인도에 대 한 전쟁도 불사했다 핵보유국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 는다는 뤀이 깨졌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 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제 위협은 한국에 있다. 실 제적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세션은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사회 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수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 체제가 안정적일 때 가능한 통 일 방안으로 공존과 화해 등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꼽

38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순차적으로 후퇴하면 있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의 위험이 감소하지만 실현 가능한 화해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 그가 제시하는 선도형 통일 방안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치 규열로 야기될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약화 를 1단계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북한 개혁정부 등 장을 2단계로, 개혁정부의 한계로 말미암아 북한이 남 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통일 지향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3단계로 이뤄진 구상이다.

박진수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통일 방안 을 구상할 때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주변 국가인 미·중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 다"면서 "선도형 통일 방안을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를 고려하고 이들과 통일 방안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선도형 통일 단계의 첫 단계로 지정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 언급하 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보 유입 조치는 민간단체 중심의 풍선 날리기와 확성기를 통한 군의 대북방송 정 도가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정보 유 입 실천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도형 통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을 주제로 한 일 방안은 기본적으로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체제 변화 이후 등장한 북한 정권이 남한에 손을 벌릴 것인 가, 새로운 개혁정권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화 고려대 일만 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선도형 통일 방안은 북한

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자생적으로 시장경제를 형성하더라도 남한과 교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도형 통일 방안, 미·중은 어떻게 볼 것인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체제가 안정 적이냐 불안정하냐고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도형 통일 방안은 간접적으로 계속 논의 돼왔던 내용이지만 1992년 보고서를 전제로 한 것이라 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핵에 대해 저항 한반도 비핵화. 평화가 전제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핵을 가진 분단체제인 현재 상황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 을 때 모든 통일은 급변사태에서 발생했고, 그 통일은 가진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고 반문하면서 "역사적 사례에 비춰 통일에서 통합으로 -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핵과 인권 요소가 추가되 가는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심한 붕괴 위기와 외부 정보로 인한 위기. 극심한 소득 격차. 비정부기구 (NGO) 활동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급변사태 에서 통일되는 것이 보편화된 역사였다는 데는 동의한 다"면서도 "금융위기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예외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한다"고 전제하고 북한을 예외적 인 케이스로 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북한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과 적대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다른 학자들이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일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 되는 것이 곧 북하을 접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 붕괴는 김정은이 사라지는 것이나 쿠데타가 될 수 있 고 민중봉기도 될 수 있지만 지도부가 완전히 공백이 되는 상황이 쉽게 오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한 국 면이 왔을 때 북한 주민이나 주변국들이 남한과의 통 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신대진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위 에서부터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아래에서부터 해 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중요한 것 은 북한 주민의 발길이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라면서 "탈북자 3만 명 시대는 이러한 점에서 상징성을

>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도형 통일 방안의 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교성을 주문했다. 안제노 국 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해왔는데 이 제재가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해봐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통일과 접목해 정책 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은 "어떤 통일 방안 이든 우리가 선도적이고 철저히 갑(甲)일 것이라는 전제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는 "북한이 붕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그 전제 조건이 받쳐준다면

> 어떤 방식이든 통일이 된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지만 서독 이 동독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책을 쓴 것이 아니고 미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호근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역시 "선도형 통일 방안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 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만약 안정화됐 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통일 방안은 뭘까 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면서 과정의 중 요성을 언급했다. NUAC



11월 17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포럼 제1회의에 패널로 나선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남광규 고려대 교수,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라진 메논 뉴욕시립대 교수(왼쪽부터).

한미 평화통일포럼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은 미국에도 중요한 것이라 트럼프 역시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임을 재확인했다.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 |

지난 11월 17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컬럼비아대 한국국제학생회가 준비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개최되었다.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이 포럼에는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 10명이 참가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열린 한미 전문가 회의인지라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와 평화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 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은 큰 변화의 시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환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지혜와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준 주유엔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의 가치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 펼쳐라"

제1회의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25년이상 지속되어온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든 결말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교역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노동자 임금 등 대북 추가 제재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돌파와 함께 최근의 탈북현상 특징을 중상층 및 엘리트층, 젊은 층의 탈북 증가로 평가하고 개인과 자유, 삶의질,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이 과거와 다른 탈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 하고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 화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그들에게도 자유와 인 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북한 내부에 계속 전 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은 적절한 경제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와서 북한 내부의 경제를 관리할 기관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붕괴 혹은 변화는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게 금융제재를 가했듯이 북한에도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번 회장은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어떻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외교정책을 내놓았으나, 유세 때와 현실은 다르기에 조금 더지켜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 량은 플루토늄탄 10여 발과 고농축 우라늄탄 10여 발 등총 20여 발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주장했듯이 핵무기 포기는 없을 것이고,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다. 중국은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폐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쪽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진 메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결정적인 장점은 인적자본"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세계 11위의경제대국으로 17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가진 반면, 북한은 400억 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트럼프 시대의 한미 동맹관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한미 평화통일포럼.

한에 비해 18배가 넘은 개인소득을 갖고 있으며 국방 비용도 북한에 비해 9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 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핵 개발 제재는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 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대북정책에 좀 더 집중할 필요 이라고 말했다. 가 있다"면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 그는 "그중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북들고 있다.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도 한국에 있고 주변을 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 예회를 긴장 속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줄이는 맹관계를 발전 것을 들었다.

"사드 배치 순조롭게 해야"

제2회의는 수미 테리 보워그룹 아시아담당 전무의 사회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스티븐 노어퍼

42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는 "동북아시아는 남중국 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개발로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앞 으로 수년간 동북아 국가들은 트럼프 정권을 맞아 긴 장 속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발전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상황은 북한이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실험 중에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 기술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를 긴장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며,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국회의원과 중앙일보 기자를 지낸 이상일 단국 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취임 후인 내년 상반기 중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도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이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전략에는 어떤 구멍도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순조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국정 어젠다의 앞 순위에 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외교안보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작 스톤피시 포린폴리시 매거진 아시아편집장 은 "트럼프의 당선은 우려가 되면서도 기대도 된다" 면서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어떠 한 외교정책을 시행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톤피시 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으 로부터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에 핵무기의 암시장 거 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 면 주한미군이 한중 국경까지 북진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니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미동맹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60 년 이상 발전을 해오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사용 하게 된 것도 외교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진 단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 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력 의 실효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확 장억제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동아시 아에서의 핵확산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자인 수미 테리 박사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 완하고 더 많은 개인과 조직을 제재 명단에 올려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계속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체 제를 유지할 것인가 중 한 가지만 선택 해야 하는 상 황에 놓일 수 있도록 만들 어야 한다" 고주문했다.

'한미평화 포럼'을 통해 양국 전문가 들은 엄중한 북핵 위기 속 에 한미 양 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



기조연설을 하는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의장.

하고,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컬럼비아대 재학생들과 한국 동포들도 자리를 같이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과 열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반세기의한미동맹이 매우 소중했던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을성숙하고 발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의견을 같이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 일한국을 만드는 여정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벗어나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거둔 위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보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포럼에서도 이러한 이상과 목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NUAC

평화통일 대토론회

종교로 북한 인권 회복, 의료로 북한 건강 회복/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는 어떤 노력을, 탈북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방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7대 종단과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공동 주최한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 발효로 국내에서도 북한의 해외 파견근로 자 인권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일 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 결집'을 주제로 열 린 이날 토론에는 성균관 유도회, 원불교 중앙총부, 천 도교 중앙총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의사협 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함께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구소련과 맞서 변화를 이끌어냈던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바웬사 대통령이 구소련과 공산당 조직에 맞서 변화를 이끌 때 두 가지를 잡고 변화와 두 려움을 이겨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가치에 대 한 확신이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 속에 용해될 때 가능해진다"면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 록 힘이 돼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기계의 명한과 국론결집
2016. 11. 09(+) 14:00~17:45 | 원국표에 선택(20) 국제회의(2)

11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 대토론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주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 한 종교계의 역할')은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김승철 북 한개혁방송 대표가 촬영해온 북한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스님은 "지난 10 여 년간 지켜본 결과 북한에도 종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간 교류를 통해 삶 속에서 남측의 평화로 움과 종교의 자유가 북한으로 전파된다면 핵보다 유리 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 김훈일 신부는 "북한에는 인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서 "러시아나 몽골, 동남아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착 취당하는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경계하다가도 차츰 식량이나 옷가지 등을 얻기 위해 몰래 찾아오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탈북민 위한 의료체계 개선 시급

천도교 정정숙 교화관장은 "북한에도 조선천도교중 앙위원회와 천우당이라는 단체가 있어 지난 2012년과 2014년 남북 합동으로 종교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용환 학술위원은 탈북 민들과의 문화 공유와 이질성 극복을 강조하면서 "겨레 얼 사업을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실태를 파악해 탈북민 3만 명 시대에서 10만 명 시대를 대비하는 어젠다를 지 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균관 유도회 박영기 교육원장은 "북한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 바꿔놓고 있다. 김일성 3대가 하늘과 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또 "전통의 례와 제례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전수함으로써 문 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나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원불교 한민족 한삶운동본부 윤창원 이사는 "각 종단에서 얘기하는 통일 이야기는 있지만 합의된 과정은 없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거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나의 원칙 아래 해나가는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기총 인권위



바웬시는 신앙과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한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원회 김규호 부위원장은 종단 내 탈북자 돕기 활동을 소개하면서 "종교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운 동에 함께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구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2세션(주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에서는 강동완 부산하나센터장이 "결핵에 감염된 만삭 임신부를 지역하나센터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 탈북민 환자들의 관리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핵과 같은 법정전염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011년까지 남북 의료 계는 많은 협력사업을 펼쳐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남북 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단절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의 학학술정보와 의료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조선의학협회 와의 학술대회 등에 교차 참석하는 등으로 교류를 재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북한이탈주민 전 담 진료기관 설치를 통해 이들의 구강검진과 진료, 시행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는 공공서비스 강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남지영 국제이사는 "각 보건단체가 정부와 협력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백찬기 대한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유병률이 높 은 관절염, 요통, 위염, 위궤양 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NUAC



2016 중학생 통일골든벨

不是是是一些 叶是也是是想要我们

지난 11월 1일과 18일, 용인실내체육관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홈에서는 2016 중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경기도대회와 서울대회가 열렸다.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열기, 그 유쾌한 축제의 한마당을 소개한다.

"헌법기구이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은 소통 의 말도 잊지 않았다. 과 화합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러나 젊은 세대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적어 안타깝습 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통일에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송경식 서울부의장을 대신해 연단에 오른 장 영철 용산구협의회장은 중학생 통일골든벨이 가지는 중

"다행히 여기 모인 학생들을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동 안 통일문제, 국가안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줄 압 니다. 중학생 통일골든벨 대회는 그가의 배움으로 세운 역사관과 통일관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2016 중학생 통일골든벨 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통일을 향해 더 큰 관심을 갖고 평화통일을 위한 밀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내 중학생과 교사, 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 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참석자들에 대한 격려와 기대 한 이 대회에는 OX퀴즈로 진행된 예선과 패자부활전에 이어 OX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등으로 구성된 본선으 로 펼쳐졌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를 둔 대 통령 직속기과이다'라 ()X무제를 시작으로 예선전이 진 행됐고. 예선을 통해 선발된 180여 명과 패자부활전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얻은 20여 명의 중학생들이 추려 져 최종 본선에 9명이 올라갔다

그리고 4명이 남은 상황에서 4명 모두가 10여 문제를 내리 맞히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문제의 난이도 는 점차 높아졌지만 학생들은 침착하게 자기 페이스를 이어갔다. 그리고 균형이 깨져 하나 둘 셋이 탈락하자 관중석에는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선생님 권유로 출전 "좋은 경험 쌓았다"

최고상인 통일상을 수상한 신서중학교 장보경 학생에 게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상과 장학금 30만 원. 평화상을 수상한 신서중학교 유정민, 상도중학교 구동재, 숭실중 학교 고시온, 등명중학교 안소현 등 4명에게는 민주평 통 사무처장상과 장학금 20만 원. 민주상을 수상한 신. 시중학교 임소희, 덕수중학교 정상혁, 상도중학교 김성 훈. 동명중학교 이강형 등 4명에게는 민주평통 서울부 중앙지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장상과 장학금 10만 원. 특별상을 수상한 신서중학교 워이 수여되었다.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자소서 등을 만드느라 이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험을 쌓아 고등학생 골든 벨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결과가 좋아 기쁘 다"고 말했다. "이지연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선 고 격려했다. 생님이 권하지 않으셨다면 대회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면서 "대 회 일정과 관련된 연락을 9월 말에 받았는데 10월 말에 3학년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있어 실제 준비기간은 열흘 남짓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칭찬했다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를 격려하는 박수도 적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개회사를 대독한 장영철 용사구협의회 장을 비롯해 양우진 중구협의회장 최복수 광진구협의 회장, 김송대 강북구협의회장, 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박준식 금천구협의회장, 최성배 동작구협의회장, 김정 헌 강남구협의회장, 이종춘 강동구협의회장, 김영숙 서 울지역회의 여성위원장, 설태화 서울지역회의 청년위원 장, 전난경 민주평통 사무처 위원활동지원국장, 강승완

전 유도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이지역 교사에게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상과 상금 30만 모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2조 예선 문제 출제에 나선 그는 대회가 끝날 무렵 "나도 학생들 통일상을 수상한 장보경 학생은 "준비 중인 사립고의 그과 함께 문제를 풀며 많이 배우게 됐다"면서 "첫소년들 은 자라나는 꽃이다. 그러나 너무 예쁘게만 자라려고 하 면 꺾일 수 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는 순간이 있더 라도 잘 이겨내면 그것은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11월 1일에는 '2016 중학생 역사통일 골 든벨 경기도대회'가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 장보경 학생의 지도교사인 신서중의 이지연 교사는 모 관내 각 지역협의회에서 선발한 예선대회 입상자 488명과 지도교사,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 했다. 중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 역사관 함양 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대회 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등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었다"고 기본학습문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 해 사전 공개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NUAC

유호열 수석부의장, 워싱턴 등 미 동부지역 대북정책 강연회 실시 군건한 한미동맹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조건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앞서 11일부터 이틀간 마이애미 힐튼가든인 호텔에서 열린 청년 콘퍼런스에 참석한 데 이어 워싱턴(11월 14일), 필라델피아(11월 15일)에서 자문위원과 교민, 그리고 현지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동부지역 대북정책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강연에서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실현 가능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의 통일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내구력과 결속력이 상당해 대북 제재가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태영호 런던 주재 북한공사와 같은 엘리트나 고 위직 인사의 연이은 탈북과 내부 정보는 김정은 체제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내일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통일에 대한 대비와 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차세대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차세대에 대한 통일교육과 확고한 통일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세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자문위원들과 동포들이 주류사회의 여론 형성과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 수석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나 위기에도 기존의 대북·통일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45 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 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 망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오바마 정부 때보다 개선된다면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공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수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정책에서 공조 수준을 높이면 중국이 6자회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할수 있도록 하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묵인하에 두차례 핵실험을 하던 북한의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도발은 억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오 사무처장 "통일 과정에서 한중 협력의 중요성" 강조

한중 평화통일포럼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논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통일포럼이 선양협의회(회장 안청락) 주관으로 지난 11월 25일 중국 선양 샹그리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을 대주제로 1세션에서는 '북핵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2세션에서는 '중 국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 권태오 사무처장은 "한중관계는 그동안의 우호관계를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하고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의 목표 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시라져야 하며, 동시에 호혜평등의 새로운 지역 질서가 구축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한 미, 한중협력은 더없이 중요하며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 다"면서 "중국의 꿈이 있듯 한국의 꿈도 있다. 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북핵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는 이태 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김태우 건양 대 교수,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천평 환추시보 영문판 부편집국장이 발제를 하고 박병광 국 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연구실장과 장동밍 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질서'를 주제로 발제한 김태우 교수는 "북핵에 대한 인식, 평가, 처방 등에 있어서의 한중 간의 차이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사드 문제를 놓고 국민 감정이 충돌하는 양상까지 빚어내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핵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위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중요시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나오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 편안한 날이 없게 될 것이고, 중국 안전을 위협하는 악몽이 될 것임"을 우려했다.

천핑 부편집국장은 "중국은 북한정책에 대한 실효 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북 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지만 되돌아 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뿐"이라 고 평가했다.

2세션에는 류밍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의 사회로 덩위원 중국공산당 기관지 학습시 보 부편집장과 유동원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그리 고 뤼차오 랴오닝대 사회과학원 국경연구소장과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덩위원 부편집장은 북한의 현 정국에 대해 진단했으며, 유동원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뤼차오 연구소장은 대북 경제 재재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직 모든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만큼 북한의 대외무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구협의회 통일을 희망하는 통일문화축제 개최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헌)는 11월 5일 봉은사에서 권태오 사무처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종구 국회의원, 이은재 국회의원, 양승미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자문위원, 지역주민, 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희망하는 강남 통일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먼저 '둘이 하나 되는 통일토크'는 '꽃제비, 대한민국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탈북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혁과 쇼미더머니에서 활약한 강춘혁 등이 출연해 북한의 현실, 탈북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 '둘이 하나 되는 통일 음악회'에서는 우리예술문 화원, 봉은국악합주단, 양재무 감독이 이끄는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 앙상블을 비롯해 다양한 음 악인들이 나와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선율을 선물해주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 열어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1월 10일 오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6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에트 라움 어린이집 원생 들의 태극 장구춤 공 연과 백두한라예술 단의 신명 나는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성낙헌 협의회장은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을 통해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 회의 평화통일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시흥시와 민주평 통에 기여하고 공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회의 경주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지진,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 월 2일 경기지역회의 운영위원회를 경주 코모도 호텔 에서 개최했다

박해진 부의장은 "경기지역회의의 작은 시작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진과 수해 등으로 침체된 경주지역에 다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활기를 띠기 바란다"고말했다.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박해진 부의장과 경기지역 회장단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밝히기 위해 통일전을 방문해 참배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 군부대 방문해 장병 위로



경기 김포시협의 회(회장 최선희)는 11월 12일 오전 육 군 17사단 포병연대 2385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성금

100만 원과 다양한 음식을 전달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자리를 만들었다.

권지영 여성분과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고된 훈 련을 견디고 있는 장병들에게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평소 군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장병들을 보니 뿌듯 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협의회 도전! 통일골든벨 성황리 개최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1월 12일 오후 신 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16 용인시민 도전! 통일골든 벨 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들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 450여 명이 참 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0명 중에서 10명 의 수상자를 뽑았다. 1등 통일상은 처인구 이동면에 거 주하는 박정민 씨가 차지했다.

통일상을 수상한 박 씨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가족들과 함께해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 이천시협의회 "통일 상상, 그림으로 그려요"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1월 5일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 앞 광장에서 '2016 어린이 통일 공감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유치부, 초등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미술대회는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주제로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열렸다.

대상은 한서진 학생(도암초 5)이, 최우수상은 정가 온 학생(설봉초 4)이, 우수상(이천교육지원청상)은 도 암초 병설유치원 손지호·신하초·조해연 학생 등이 수 상했다.

경기 가평군협의회 용산 전쟁기념관 등 견학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1월 8일 가평초 등학교 4학년 학생 120여 명과 교사, 자문위원들과 함 께 용산 전쟁기념관을 견학했다.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6·25전쟁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물을 시청 하며, 가슴 아픈 6·25전쟁과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 배우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구지역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대축제' 개최



대구지역회의(부 의장 박규하)는 11 월 6일 대구공고 옥 저관에서 '대구 시 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통일 한마음 대축제에는 권태오 사무처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탈북민, 실향민, 다문화가정, 자문위원, 대구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함께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통일 한마음 대축제는 명랑경기, 북한이탈주민 장기 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색소폰 연주와 북한이탈주민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지역회의 북한 인권 주제로 평화통일포럼 개최



강원지역회의(부 의장 박용성)는 11월 14일 오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 성 강원부의장, 김철

래 강릉부시장, 18개 시·군협의회장을 비롯해 강원포럼 회원, 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강 원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강원 평화통일포럼은 오경식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북한 인권 문제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강원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으로진행됐다.

충남지역회의 충남 여성 생생토크, 통일 수다방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묵) 여성위원회(위원장 진 명희)는 11월 4일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충남 지역 여성자문위원과 지역 여성, 탈북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을 준비하는 지역 여 성들의 역할과 자세' 를 주제로 '2016 충 남 여성 생생토크, 통일 수다방'을 개최 했다.



'지역 여성 통일리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의 실정과 현황을 배우며 통일을 위한 준비된 지역 여성리더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통일 수다방'에서 패널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여성의 역할로 여성의 탁월한 섬세함과 모성애로 봉사하고 실천하는 지역 여성 통일리더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충남 예산군협의회 삽교중 학생들과 안보 현장 견학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11월 22일 삽교중 학교 학생 95명과 교사 등 100여 명과 함께 파주로 안 보 견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임진각 내의 평화의 종, 자유의 다리, 장단역 증기기관차, 망배단 등을 견학한 후 제3땅굴의 비무장지대(DMZ) 영상관을 관람하고 도보로 땅굴을 견학했으며, 도라전망대에서는 DMZ와 개성공단 지역을

망원경으로 살펴보며 안보의식을 키우고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북 괴산군협의회 탈북민, 다문화가정 무료 건강검진 실시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1월 17일 괴산 성 모병원에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1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괴산군협의회는 관내 거주하는 탈북민의 지역 정착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작지만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 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충북 단양군협의회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11월 2일 오전 단양관광호텔에서 여성 자문위원과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심옥화) 회원 및 이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2016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적담회에서는 '김정은 체제 대비 우리의 통일·안보전 략을 주제로 한 충북대 안성호 교수의 발표에 이어 실 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여성의 역할, 한반도 통일을 위

52 2016 DECEMBER 53



한 여성의 리더십 구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이번 통일 좌담회가 한반

도 정세와 남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회의 청년 통일토크·무화 콘서트 열어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영택)는 11월 11일 오후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의 통일나래 동아리 학생과 일반 대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청년 통일토크·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토 크콘서트에서는 탈북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들로 구성 된 멘토들이 평화통일에 관한 젊은이들의 생각과 고민 들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 레 통일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남 금산군협의회 '자문위원 통일 연수' 개최

충남 금산군협의 회(회장 태진수)는 11월 8일부터 이틀간

11월 8일부터 이틀간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자문위원 통일



연수를 마산대학교와 경남통일관에서 개최했다.

통일 연수에서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의 '지방과 통일', 이혜영 탈북강사의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2일 차에는 자문위원들이 경남통일관을 방문해 통일 관을 관람하고 북한 실상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했다. 연수에 참가한 자문위원들은 이번 통일 연수를 통해 통 일·북한 전문가들의 특강이 매우 유익했으며 자문위원 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자문위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시 간이 됐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협의회

"속도전 떡, 꼬장떡 드셔보세요"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11월 9일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북한 음식 체험 시식회 및 북한 실상 사 진전을 개최했다.

이날 시식한 음식은 통영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으며, 북한 대표 먹거리인 속도전 떡을 비롯해 꼬장떡, 강냉이 죽, 두부 밥, 나박김치 등이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현장에서 직접 요리 과정을 선보인 한 탈북민은 "북한 음식은 북한의 어려웠던 시절이 반영돼 설탕 등이들어가지 않아 달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음식을 맛본 최경애(광도면) 씨는 "문화나 언어가 많이 달라 북한 음식은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 생각해 거부감이 들었는데, 막상 음식을 맛보니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며 "남북이 분단돼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식 체험장 옆에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 등 분단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경남 양산시협의회 통일 사과나무 심기 행사 가져



경남 양산시협의 회(회장 전재근)는 11월 12일 원동면 선리마을에서 자문 위원과 탈북민 60 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사과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선리마을 사과작목반에서 분양받은 사과 나무 30그루를 심고 평소에는 작목반에서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은 주 말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나무를 가꿀 계획이다. 양 산시협의회는 "올해 세 번째 실시하는 분양이지만 호응이 좋아서 이미 신청자가 30명 정도 몰려 있다"며 "내년에는 6월쯤 분양을 받아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협의회

"농촌 가을걷이에 앞장서요!"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서정숙)는 여성 자문위원들과 함께 11월 8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일소을 거들었다.

서정숙 여성분과위원장은 "봉사활동으로 위원 간에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함으로 써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소 감을 전했다.

경북 상주시협의회 '초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개최 열어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1월 10일 상산초 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80여 명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도전! 초 등학생 나라 사랑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날 통일골든벨 대회에서는 36명의 학생들이 수 상했으며, 김채연(상주초 6) 학생이 대상인 경상북 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과 상금 20만 원을 받 았다.

김채연 학생은 "골든벨 퀴즈를 풀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통일에 대해 배우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정정 당당하게 겨루는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 을 밝혔다.

경북 영천시협의회 장병 토크콘서트, 북한 음식 시식회 열어

경북 영천시협의회(회장 류시홍)는 11월 17일 육군 제 50사단 영천연대를 방문해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먼저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는 탈북 강사 4명과 함께 통일안보 및 북한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자문위원과 통일여성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만든 북한식 두부 주먹밥과 아바이순대를 장병들과 나눠 먹으면서 북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했다. 북한식 음식을 처음 맛본 장병들은 새로운 체험에 즐거워했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도 전자바이올린,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협의회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 열어



전북 전주시협의 회(회장 나춘균)는 11월 12일 전주시 자 원봉사단체 리더 양 성교육 워크숍 현장 을 찾아 2016 통일

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통일시대 시민 교실은 북한 인권 청년단체(NAUH) 지성호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인권 문제와 통일 준비를 위한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시민교 실은 나춘균 협의회장과 지성호 대표, 탈북 여성이 북 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자 원봉사자로서 탈북민과 어떻게 공감하며 통일을 맞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 간이 됐다.

경북지역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 하반기 연수



경북지역회의(부 의장 한삼화)는 11 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코모도호텔에 서 경북지역 자문위 원 3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6 하반기 경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 첫날에는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의 '북한 체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통일 강연,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 존소 소장과 탈북민이 함께한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탈북민이 직접 경험한 북한의 실상 과 생활 모습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태윤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테러 전쟁과 IS(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그리고 북한'을 주제로 한 통일 강연에서 테러 조직과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 사천시협의회 평화통일 염원 휘호·그림 그리기 대회



경남 사천시협의 회(회장 전재석)는 11월 10일 오전 삼 천포체육관에서 제 5회 평화통일 염원 휘호대회 및 제2회

나라 사랑 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60여 명과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서예(한글, 한문)와 그림(크레

파스화, 수채화)으로 표현했으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창 작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지역사회 에 확산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꿈과 의지를 다져 하나 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전남 목포시협의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선상 워크숍



전남 목포시협의 회(회장 우승하)는 11월 8일부터 1박 2 일간 탈북민, 자문위 원 등 30여 명이 참 가한 가운데 '선상

워크숍과 제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제주도로 가는 선상 세미나실에서 조옥희 자문위원으로부터 탈북민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고, 탈북민 과 자문위원들은 정착 과정에서 느낀 편견을 이야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탈북민은 "남한에 와서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 제주도였는데 처음으로 오게 되어 너무기쁘다"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가보는 꿈이 이뤄졌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전남 완주군협의회·경북 김천시협의회 22년간 이어온 영호남 교류 행사 가져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 소속 자문위원 20 여 명은 11월 23일 전남 완주군을 방문해 완주군협의회



(회장 정완철)와 교 류 행사를 가졌다.

두 지역 간의 교 류는 1994년에 시작 해 올해 22년째 이 어오고 있으며 해마

다 번갈아가며 상대 지역을 방문해 관광지 답사, 지역 특산품 교환 등으로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장을 넓혀가 고 있다

부산 기장군협의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체험 실시



부산 기장군협의 회(회장 김세현)는 11 월 11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모전중학교 학생

300여 명과 교사, 탈북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체험은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희망하 는 역사의 현장인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옥포대 첩 기념탑 등을 견학하며 참가자들에게 역사와 통일관,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소감 말하기와 통일퀴즈를 통해 통일에 대해 이 날의 통일 현장 체험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 남구협의회 통일 준비에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 여성분과위원회(위원 장 김현미)는 11월 22일 오전 남구청에서 여성 자문위 원과 남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등 60 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16 여성 통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통일 좌담회는 강



동완 동아대 교수와 차고은 탈북강사의 통일대화로 시작됐다. 강동완 교수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여성 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차고은 강사는 북한 사회에서의 한류문 화 등 새롭게 변화되는 북한의 사회상을 소개하며, 탈 북 여성 엄마 되어주기 등 통일 준비 활동에 여성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역회의 청년위원·통일동아리 안보 현장 견학



제주지역회의(부 의장 김순택) 청년위 원회(위원장 김치용) 는 11월 18일부터 2 박 3일간 청년 자문 위원, 대학생 통일동

아리(제주대 '호피스', 제주한라대 '한백') 학생, 동아리 지도교수 등 40여 명과 함께 판문점 등으로 안보·역사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현장 견학 일정 중 '주한미군 주관 좋은 이웃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전쟁기념관 등 견학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간접으로나 경험하며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제1기 미주 통일 아카데미 수료식 열어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권석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미주 통일 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이 11월 22일 스탠턴 김스피아노 리사이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자문위원과 학생 등 수료생 23명과 가족,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9월 16일부터 6주간 진행된 통일 아카데미 1기에는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전 초대 유엔 인권대사),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정동준 선임연구원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21세기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북한 인권 문제, 분단과 가족법, 북한 경제 현황. 남북 경제 통합과 통일 등에 대해 강연했다.

마이애미협의회 화합과 융합의 청년 콘퍼런스 개최

마이애미협의회(회장 스티브서)는 11월 11일부터 2박 3일간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19 개 협의회 60여 명의 청년 자문위원, 지역 유력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화합과 융합 청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차세대 리더인 워싱턴협의회 김진국 위원의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정보 유입이 북한을 어 떻게 바꾸나'를 주제로 한 강연과 '청년위원이 만들어가 는 통일', '차세대 양성' 등의 안건에 대한 분임토의와 발 표가 있었다.

또한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인 마크 킴의 특강과 탈북자이현서 씨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통일 강연도 있었다.

미**안마지회** 주니어 평통 콘퍼런스 개최



서남아협의회 미 얀마지회(지회장 전 성호)는 11월 5일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별관 2층에서 '주니 어 평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 주니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통일 준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5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주제로 주니어 평통 위원들의 적극적인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성호 지회장의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에 대한 설명,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의 '북한의 참담한 실상'을 소개하는 영상 강연도 진행됐다.

서울 강동구협의회

"통일운동이 막연하다고? 생활밀착형으로 하면 돼! 결국은 사람이야"

서울 강동구협의회는 어울림을 강조한다. 같이 놀고 공부하고 어울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터득한 것이다. 탈북민과 하나가 되는 작은 통일을 그들은 이미 이뤄놓고 있다.





광복 71주년 통일 염원 남북삼합제 '2016 한라에서 백두까지'(왼쪽). 2016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송편 나누기.

지난 5월 민주평통 서울 강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0 여 명이 백두산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그곳의 흙과 물을 소중히 담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보 다 앞선 2015년 11월에는 한라산 등반을 함께했다.

"평양을 거쳐 가려던 계획이 번번이 무산돼 중국을 통해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올라간 서파(西坡) 지역은 중국이 북한 땅을 빌린 곳이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었더니 가이드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워낙 감시가 심한 곳이라 흙과 물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가져갔던 현수막이며 태극기, 카메라 저장장치 등도 중국 공안에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만반의준비를 하고 갔던 데다 40명이 첩보작전을 펼치듯 움직여 겨우 일부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료사진은 그렇게해서 남긴 겁니다."

강동구협의회 이종춘 협의회장의 설명이다.

그렇게 백두산에서 가져온 귀한 흙과 물은 한라산에서 가져온 흙과 물과 합쳐졌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동구협의회 주최 '광복 71주년 통일 염원 남북삼합제' 행사는 남과 북의 흙과 물,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지만 그 아쉬움을 북한 땅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신해주었다. 지역주민 300여 명도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에함께했다. 그야말로 남과 북의 흙과 물, 사람이 한마음한뜻으로 통일 염원을 모은 자리였다

삼합제에 이어 '불어라 통일의 바람아~ 한라에서 백 두까지'라는 통일 염원 문구가 새겨진 기념표석 제막식 을 열었다. 기념표석이 세워질 통일동산을 만들고 그 곁





2016 을지연습 격려하는 지문위원들(왼쪽). 2016 강동 여성리더 통일 좌담회.

에 무궁화 나무를 심고 표석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강동 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 이 재능 기부에 나선 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강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열성은 민주평통 안에서 도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 합수제를 치르기 위해 백두 산에 올라 갖은 고생을 하며 흙과 물을 담아온 일화부터 가 그렇다. 단합된 힘은 평소에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협의회 모임이 열리는 날이면 125명 자문위원 중 100여 명은 반드시 참석하는 높은 출석률부터가 그렇다. 아무 리 바빠도 민주평통 일이라면 열 일 제치고 나서는 것이 강동구협의회의 전통이다.

선배와 후배, 지역민과 탈북민이 하나가 된다

모임만 열성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펼치고 까지 생겨났다. 있는 통일 활동은 생활밀착형이라 생생하기 그지없다. "통일 활동어

"학원을 하시는 한 자문위원님은 지역 내 탈북민 자녀를 모아 무료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이 남북한 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만 기여하는 게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탈북민과의 교류가 이뤄집니다. 생활고나 여타의 이유로 통일 활동을 함께하기 어려워하시던 탈북민들이 자녀 교육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자문위원과 친분을 쌓아 통일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과 탈북민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정월 대보름마다 진행하고 있는 연날리기행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2005년 이종춘 협의회장이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적이 쳐들어 왔을 때 연을 날렸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날리는 연 에는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연날리기 시연은 물론이고 연 날리는 방법까지 교육받은 덕에 강동구 주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정월 대보름이면 이 행사가 열리는 한 강 두치를 찾는다.

10월에 열리는 선사(先史)축제도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좋은 기회다. 선사 유물이 많은 강동구의 지역 특성을 살려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통일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거나 설문지를 돌린다. 자연스럽게 민주평통의일을 알리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덕분에 민주평통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주민까지 생겨났다

"통일 활동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돌파구는 통일에서 찾아야지요.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정치적 성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성공입니다.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서독에 와보니 사람 살 만하다는 걸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민과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엔 사람이다'.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그일을 강동구협의회가 해내고 있다. 물론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임기가 끝난 자문위원들은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 민주평통 동우회를 조직했다. 선배와 후배, 지역민과 탈북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강동구협의회의 멋진 통일 활동을 기대해본다. NUAC



62

헌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보호·보존 하기 위해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 경판전 등재를 시작으로 모두 12점의 세 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유산을 차 례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 **양영훈** 여행작가 |

종묘는 신전(神殿)이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 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조선왕 조의 정신적 모태나 다름없는 셈이 다. 신전답게 외양은 장중하고 분위 준다. 기는 엄숙하다. 지금도 해마다 전통 방식대로 종묘제례가 봉행된다. 건 축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두루 갖춘 종묘는 1995년 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됐다

종묘의 정문은 외대문이다. 그 문 을 들어서는 순간에 번잡한 바깥세 상은 까마득히 잊힌다. 도심의 빌딩 숲은 온데간데없고 아름드리 고목 들로 빼곡한 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숲속 한복판에 반듯하게 뻗은 삼도 (三道)의 끝에는 정전(正殿, 국보 제 227호)과 영녕전(永寧殿, 보물 제 821호)이 자리 잡았다. '凸(철)'자 모 양의 돌길인 삼도는 말 그대로 '세 가지의 길'이다. 가운데 길은 높고. 그 양쪽의 길은 낮다. 가운데 길은 신만이 다닐 수 있는 신로(神路)다. 양쪽 길 중에서 동쪽은 임금이 걷는 어로(御路), 서쪽은 세자만 걸어가 는 세자로이다.

길은 정문에서 정전까지 곧게 뻗 었지만, 관람객들은 곧장 정전으로

향할 수 없다. 자유 관람제가 실시 되는 토요일 이외에는 해설사와 함 께 정해진 순서대로 관람해야 된다.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해설사 는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하기에 앞 서 종묘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종묘와 사직을 중시

왕조시대의 임금은 조상신과 자 연신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왕들의 조 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인 종묘.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인 사직(計稷)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성한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의 종 묘는 왕실과 국가의 또 다른 이름이 었다. 그래서 종묘에서 거행되는 제 례는 그지없이 성대하고 엄숙했다. 가장 좋은 음식이 올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공연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재현 되는 종묘제례(국가무형문화재 제 56호)와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 재 제1호)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 산으로도 등재돼 있다.

해설사가 안내하는 관람 동선을 따라가면 맨 처음 망묘루(望廟樓) 앞 에 다다른다. 제향(祭享)할 때에 임금 이 이곳에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 을 추모하고, 종묘사직과 백성을 생

2016 DECEMBER 63

3 향대청 주변의 설경, 제례 예물을 보관하고





- 1 정전의 정문에서 바라본 광활한 월대와 길 게 누운 정전, 숨 막힐 듯한 긴장감과 엄숙함 이 느껴진다.
- 2 종묘 관람 동선에서의 첫 번째 경유지인 망
- 3 영녕전 앞의 신위 봉안도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사.

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망묘루에는 한 칸짜리 누마루가 설치돼 있다.

망묘루 동쪽에는 고려 31대 임금 인 공민왕을 기리는 신당이 있다. 정식 명칭은 '고려 공민왕 영정 봉안 지당(高麗 恭愍王 影幀 奉安之堂)'이 다. 조선 왕들의 영혼이 깃든 종묘 에 공민왕 신당이 있다는 사실이 뜬 금없어 보이지만, 이미 종묘를 창건 할 당시에 건립됐다고 한다. 신당의 내부에는 공민왕과 왕비였던 노국 공주가 함께 그려진 영정(景順). 준 마도(駿馬圖)가 봉안돼 있다.

망묘루, 공민왕 신당과 같은 구역 안에는 향대청(香大廳)도 있다. 남 북으로 긴 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길쭉한 건물이 마주보며 배 치되었다. 향과 축문, 폐백 등의 제 레 예물을 보관하고. 제향에 참가하 는 헌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향대청에서 50~60m쯤 걸으면 정전의 동남쪽에 위치한 재궁(齋宮) 에 들어선다. 왕과 세자가 제사를 준비하던 곳이다. 재궁 안에는 왕이 머무는 어재실과 세자가 머물던 세 자재실, 그리고 왕이 목욕하던 어목

욕청이 갖춰져 있다. 재궁 북쪽의 전사청(典祀廳)은 종묘제례에 쓰이 는 제수를 준비하는 곳이다. 전사청 바로 옆에는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유달리 차가웠다 는 우물인 제정(祭井)이 있다.

동행한 해설사로부터 전사청과 '정 전 신위 봉안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동문을 통해 정전 구역에 들 어선다. 정전을 드나드는 문은 세 곳 이다. 그중 동문은 종묘제례를 올릴 때에 왕과 세자를 비롯한 제관들이 이용했다 서문은 악공과 춤을 추는 무희들이 출입하던 문이다. 정문인 남문은 조상신이 들어가는 문이어서 신문(神門)으로도 불린다

종묘를 상징하는 건물인 정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건물이 다. 가로 109m. 세로 69m의 넓은 월대(月臺) 위에 길이 101m의 정전 이 올라앉았다. 월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로를 중심축으로 건 물 전체가 좌우 대칭을 이룬다. 정전 의 정문에서 광활한 월대와 길게 누 운 정전을 한눈에 바라보노라면 숨 막힐 듯한 긴장감과 엄숙함이 동시

에 느껴진다. 장식 없는 붉은 기둥 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광경 은 절제미와 엄정함의 극치를 보여 준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 가이자 조각가인 프랭크 게리(86)는 20년 전쯤 종묘를 처음 찾았을 때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이렇게 훌 륭한 건물이 있다니"라며 한동안 말 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別廟에 모셔진 황태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개국 한 지 3년째인 1394년 10월에 개경에 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해 12 월에 착공된 종묘 건립공사는 이듬 해 9월에 마무리됐다. 처음에 7칸으 로 지어진 정전은 다시 증축되어 11 칸 건물이 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전쟁이 끝나고 임금이 된 광해군 은 즉위하자마자 종묘를 복원했다. 영조와 헌종 때에 각각 4칸씩 증축되 어 지금과 같은 19카짜리 건물이 되 었다. 여러 차례나 증축됐는데도 마 치 단번에 지어진 건물처럼 이음새가 매끄럽고 자연스럽다.

사당 건물답게 전체적으로 화려하 지 않고 장엄함이 도드라진다 장식 과 색채를 최소화해서 단순·검약·소 박한 느낌을 강조한 덕택이다.

정전 앞에는 드넓은 월대가 펼쳐진 다. 종묘제례 때에 이 앞마당에서는 팔일무(八佾舞)가 펼쳐지고 종묘제 례악이 연주된다. 월대에는 얇고 거 친 돌들이 촘촘히 깔려 있다. 신성한 공간에서 경박한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또한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 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월대 전 체를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다.

실에는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왕의 신주는 개국조인 태조부터 대 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까지 총 19위가 있다. 태종, 세종, 세조. 선조, 숙종, 영조, 정조 등 재위기 간이 길고 공덕이 있는 왕의 신주가 주로 모셔져 있다.

정전 옆에 자리한 영녕전은 별묘 (別廟)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왕과 왕비의 위패가 늘어나 정전에 다 모실 수 없게 되자 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곳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거나 재위기간이 짧았 던 왕들의 신주를 모셨다. 문종, 단 종. 명종. 예종 등등. 태조 이성계 의 4대 조상, 추존왕인 장종(사도 세자).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영

친왕 등 왕 15위와 왕후 17위의 신 주가 모셔져 있다

전체적인 구성과 건축 구조는 정 전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품격 현재 종묘 정전의 신실(神室) 19 과 규모는 확연히 떨어지는 편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종묘를 복구 하는 일에 진력한 광해군과 조선 제 일의 악덕 군주로 꼽히는 연산군은 폐주(廢丰)가 되는 바람에 종묘 어 디에도 신주가 봉안되지 못했다.

> 종묘의 상징인 정전은 사시사철 어 느 때 찾아가도 그 위엄과 웅장함이 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절제. 장엄으로 함축되는 정전의 아름다움 이 가장 극대화되는 때는 한겨울 큰 눈이 내린 뒤다 폭설에 뒤덮인 정전 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아니 자연의 일부가 된 건축물로 다가온 다 언젠가 불쑥 찾아올 그날이 벌써 부터 기다려진다. NUAC



관람 안내

종묘는 문화재해설사의 인솔 아래 시간제 관람만 가능하다. 한국어 관람시간은 하루 8회(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진행된다, 단, 매주 토요 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자유 관람으로 실시된다. 관람시간은 1시간쯤 소요되며,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관람료는 1000원(어른).

실속형 비즈니스 호텔인 이비스앰배서더인사동호텔(02-6730-1101)이 외대문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다. 종묘와 창덕궁 주변에는 레몬트리호텔(02-762-5722), 메이커스호텔(02-747-5000), 더안호스텔(1577-0988), 게스트하우스코리아 (02-3675-2205) 등 숙박업소가 많다.

종묘와 이웃한 창덕궁 정문 근처에는 최근 (미슐랭가이드)의 원스타 맛집으로 선정 된 프렌치 레스토랑 다이닝인스페이스(02-747-8105)가 있다. 종묘의 서쪽 담 옆에 자 리한 순라길(02-3672-5513)은 장안 최고의 홍어 전문점으로 소문 난 집이다. 종로3 가역 부근의 영춘옥(02-765-4237)은 내력만큼이나 깊은 곰탕, 설렁탕 맛이 일품이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1호선) 11번 출구에서 종묘 정문(외대문)까지의 거리는 약 320m.



더 이상의 뮌헨협정은 없다

지난 10월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민간 차 원(Track 2)의 미·북 간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대사, 조셉 디트 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등 미국 측 참여인사 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접촉에서 북한은 핵 동 결을 거론하며 미·북 간 직접대회와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접하며 북한의 만성적인 '평화협정 집착증'을 재확인하 게 된다.

1953년 7월 23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비근하게 올해 제7차 당대회 기간에도 김정은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연

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천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미군 철수→연방제 통일'로 연결되는 북한식 통일공식을 재차 주칭한바 있다. 비록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해온 주장이지만 북핵 위기시대의 엄중함은 이를 진부한 수사로만 여길 수 없게 한다.

평화협정은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평화 회복과 현상 유지를 약속하는 국가 간 공식 약속이다. 역사를 보 면 강화조약, 불가침협정, 평화회의, 부전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양자·다자 간 평화협정이 체결돼왔으나 이 협약들이 실효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평화협 정의 성공 여부는 당사국들이 현상 타파를 원하느냐, 현상 유지 를 바라느냐 하는 성향과 군사적 균형 상태에 의해 결정돼왔음 을 역사는 보여준다.

지속 가능했던 성공적 평화협정은, 당사자 대부분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거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에 가능했다. 전자의 대표적 예가 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 체계이다. 30년간 전 유럽을 도살장으로 만든 종교전쟁에서 생존한 구교·신교 세력들은 전쟁 상태를 종식하기로 맹세했다. 전쟁의 참화에 지친 조약 당사자들은 현상 유지 세력으로 기능하며 현상 변경 세력의 흥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후자의 대표는 나폴레옹 전쟁 후 전전(戰前) 상태로의 복귀와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기획조정 실장·국제전략연구실장,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 좌관, 국제정치학회 연구 이사 등 역임. 현재 민주 평통 상임위원 평화 유지를 의결한 1814년 비엔나회의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 수 있다. 냉전기간은 긴 평화(Long Peace)의 시기이기도 했다. 지금의 평화는 초반에 파열음을 내던 알타체제가 상호 확증파괴능력 확립에 따른 미·소간 '공포의 균형'과 흐루시초프 집권 이래 진행된 구소련의 현상 유지 세력화로 안정을 찾게된 것이 근간이 됐다.

반면 현상 타파를 원하는 세력 간에 맺은 평화협정, 혹은 갈등 상태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맺은 평화협정은 수명이 길지 못했다. 전자의 대표로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과 1941년 일·소 중립조약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두려워 나치독일의 체코 영토 합병을 승인함으로 써 또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된 1938년의 뮌헨협정, 체결 2년 만에 공산회를 초래한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현상 타파 세력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2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한 1919년 베르사유조약 등이 있다. 현상 타파 세력은 작은 '기회의 창'이 열려도 조약을 깨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6·25전쟁 정전협정 이래 무수한 도발을 자행해왔고, 급기야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북한을 현상 유지 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현상을 변경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단계로 활용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대북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미국과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을 대상으로, 오른손으로는 핵무력을 움켜진 채 한반도를 인질로 삼아 위기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왼손으로는 평화협정과 연방제 통일을 들고 강매에 나서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내놓은 거짓된 평화의 유혹이 종국엔 파국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갈등을 안 고 있음에도 불안한 평화를 선택했다가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뮌헨협정의 비극이 한반도에 재연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NUAC

통·잌·퀴·즈

온가족이 도점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통일골든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지면에서 열리는 '통일골든벨을 통해 온 가족이 우리 역사와 통일에 관한 시사상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펼칠 것 01 으로 예상되는 국제정치 전략은? ①역외균형 ②세력균형 ③세력전이 ④스윙전략
- 02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걸리지 않는 외화벌이 방법 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 방문 관광객 모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행사는? ①고려여행사 ②조선여행사 ③북극성투어 ④광명성여행
-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03이 두려워 나치독일의 체코 영토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된 1938년의 협정은? ①샌프란시스코협상 ②제네바협상 ③파리협상 ④뮌헨협상
- 우분투 정신으로 흑백 인종갈등을 푼 남이공의 유명한 인권 04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①이디 아닌 ②멜레스 제나위 ③넬슨 만델라 ④나세르
-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05 의 군수산업을 총지휘하는 부서는.
 - ①38호실 ②제2경제위원회 ③중앙군사위원회 ④국방위원회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

- 1 ① 브란텐부르크 문 2 ① 종합시장 3 ④ 타우러스
- 4 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5 ①두만강 하류의 함북지역

| 지난 호〈통일퀴즈〉정답자 |

송기헌(서울 도봉구) 김재윤(서울 성북구) 강구권(대구 달서구) 김신자(경기 수원) 조미금(광주 광산구) 유혜미(강원 원주) 정성균(전남 순천) 서순영(부 산 해운대구) 장현갑(경기 부천) 김종신(경남 진주)

위 문제의 답을 12월 14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12월호(제122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골든벨' 또는 '통일퀴즈'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